

오피니언 리더



정 성 천
(주)한국영제교육발전연구소
광산교회집사

▶절댓값과 상대값

요즘 온도가 높다. 공기임자들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이다. 열에너지(thermal)는 입자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이므로 요즘 공기의 열에너지 값은 크다.

일상에서는 열에너지를 cal(칼로리)로 정의한다. "이 빵의 열량은 600Cal이다"를 빵이 지닌 열에너지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빵의 열에너지의 값을 측정할 수 없다. 비록, 빵의 온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빵이 지닌 열에너지의 절대값은 알 수 없다.

열에너지는 항상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의 부의 값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절대값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부의 절대값은 매길 수 없지만, 마치 열에너지의 경우에서처럼,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놓는 부의 상대값은 매길 수 있다. 타인에게 기꺼이 받은 시는가? 타인에게 열정적인가? 타인에게 인격적인가? 입으로 꺼낸 말은 책임지는가? 에서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낸, 타인에게 옮겨간 부의 값은 측정되고 매겨진다. 한 개인의 부의 절대값은 알 수 없어도 그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내놓는 값으로 그 사람의 부의 상대값이 매겨진다. 빵의 600Cal는 빵으로부터 사람에게 흐르는 관계에 의한 값인 것처럼 사람의 부값도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상대적인 값이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부 값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칭하더라도 밥 사는데 눈치 보는 사람, 밥은 잘 사지만 빠기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 타인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 권위 있고, 부자이며, 지혜롭고, 똑똑하다며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지라도 그것은 혼자서 매긴 값일 뿐 세상 밖으로 드러난 실제 값은 아니다.

▶믿음의 척도

사람의 믿음도 같은 맥락을 지닌다. 사람의 믿음 값은 틀인데,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매긴 절대값이고, 또 하나는 타인과의

믿음의 상대값!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고온인 물체의 열에너지는 감소하여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인 물체의 열에너지는 증가하여 온도가 올라간다. 우리는 온도의 변화를 통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 열에너지 값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계산된, 이동한 열에너지 값을 열(heat)이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값을 매겨 이용하는 cal(칼로리)는 열에너지(thermal)가 아니라 열(heat)이다. 빵에 적혀있는 열량 600Cal는 사실 빵이 지닌 총 열에너지인 절대값이 아니라, 사람이 빵을 먹었을 때 빵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상대값을 의미한다. 만일 이 빵을 지렁이가 먹는다면 빵의 열량이 600Cal가 아니라 800Cal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량은 상대값이다. 열에너지(thermal)는 물체 자체에 속한 에너지의 절대값이고, 열(heat)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동한 에너지로 상대값이다.

▶부양의 척도

우리의 삶에서는 열에너지(thermal)처럼 그 자체에 내재된 절대값은 매길 수 없지만, 열(heat)처럼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동한 상대값은 매길 수 있는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의 부의 척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 심지어 재능, 인간관계, 경험, 성격 등을 다 합쳐서 매겨야 하므로 부의 절대값을 매길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신

관계성에서 매겨진 상대값이다. 자신의 시간 계획, 자신에게 약속한 목표를 향한 지속성, 연 초에 결심한 작심, 거러에서의 신용성 등 자신이 한 약속을 성실히 실행한 정도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 값을 매겨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믿음의 값을 매겨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믿음 값은 그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놓는 믿음으로 그 값이 매겨진 상대값이다. 자신의 믿음 값이 크다고 생각할지라도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그 값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물리는 펄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열에너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다른 물체와의 관계가 없을 때는 열의 상대값은 0이듯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한 믿음은 혼자만의 것으로 0일 뿐이다. 뜨겁게 흐르는 붉은 용암은 거대한 열에너지를 지녔을 지라도 주변의 생명을 파괴할 뿐 그 절대값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에 낮은 온도로 흐르는 보일러의 물은 쌀 한 톨 익힐 수 없지만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 믿음은 절대값보다 상대값의 크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자신이 스스로 매긴 믿음 절대값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달 된, 타인이 매겨준 믿음 상대값을 찾으신다. 이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말씀이 대변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신의 선물'이라 불리우는 옥수수 이야기

쌀, 밀과 함께 세계 3대 곡물인 옥수수는 쌀과 밀보다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량과 짧은 수확 기간 그리고 생존력이 좋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다. 게다가 쌀이나 밀만큼 관리해 주지 않아도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옥수수는 인류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작물로 손꼽히기에, 옥수수박사로 알려진 김순권 교수는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다.

옥수수는 다른 곡물과 달리 복잡한 가공 과정이 필요 없고, 식용 방법도 매우 간편하다. 따다가 바로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이다. 그 외에도 이용 방법이 무궁무진한 식량 작물이며 어떤 작물보다 효용성이 뛰어난 사료 작물이다. 옥수수는 액상과당, 식용유, 전분, 마가린 원료로 쓰이고, 수확한 뒤에 남은 줄기와 잎도 사료나 퇴비로 만든다. 옥수수 수염과 속대는 의약품으로 이용하고 옥수수 이삭을 덮어 주는 껍질은 모자나 각종 공예품을 만드는데도 쓰인다. 현대에는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옥수수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중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10여개 주에 걸쳐 한반도 전체 넓이의 3-5배인 광활한 옥수수밭의 콘 벨트 corn belt 지역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첨단농업의 선두주자다.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지평선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대규모 농장을 관리하는 건 직원 몇 명뿐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씨앗을 심는 간격, 물과 비료와 농약을 주는 시간과 양 등 첨단으로 조절한다. 거기에 해충과 제초제 저항이나 영양과 수확량 향상하는 GMO 옥수수까지 어우러진 결과다.

〈감자튀김-스테이크-버번 위스키-콜라와 아이스크림〉 이들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곡물은 무엇일까? 위 식품 모두에 관련된 곡물은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미국의 일상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는 '감자튀김-스테이크-버번 위스키-콜라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첫째, 감자튀김은 감자가 주원료이지만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다. 둘째, 스테이크의 재료가 되는 소고기는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가축이 먹는 사료가 주를 이룬다. 셋째, 버번(Bourbon) 위스키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아메리칸 위스키이다. 과잉생산되는 옥수수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를 생산한다. 넷째, 콜라와 아이스크림 제조에 액상과당을 사용한다. 설탕을 대신하는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만든 사탕이다. 식품의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옥수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로 손꼽힌다. 그렇기에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은, 옥수수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국가이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옥수수 왕국이라 할 수 있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86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몰락과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승리하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방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병과 장애로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질병과 장애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질병과 장애를 믿음으로 저항하고 극복하여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죄로 인하여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버림받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는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었고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셨

도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세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꺾으신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세상에서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정당화 하는 것이고 의미있게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알맹이이고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선교를 갔다왔는데도 당

세계선교의 시작은 나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3

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새생명의 새사람의 삶 5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5가지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각자에게 맞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모든 부분에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

신의 마음이 허탈한 것은 알맹이가 없는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모양은 있는데 증인의 알맹이가 없고 삶이 없고 간증이 없어서 허탈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모양만 따라가지 말고 증인의 삶과 모양을 균형 있게 살아보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세계선교의 시작은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나의 개혁이란 어디에서 어디로의 개혁인가요? 알맹이 없이 껍질만 있는 빵을 공갈빵이라고 하더군요. 본질이 가득한 당신의 삶, 당신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축 미션21 창간26주년

문서를 통한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장 서영식 목사

◆ 신춘문에 심사위원

김용택시인 송수권시인 문순태소설가 이항아시인

미션21 크리스찬 신춘문에 작가의

2003 제1회	박대중장로 김승원목사 조영일목사 최철연목사
2004 제2회	김형미목사 김문선목사 서해석장로 신방민장로 이재영목사 김용준목사 김영목사
2006 제3회	박정보목사 김신덕장로 김정순전도사 이남용성도 박대웅목사 박순길목사
2007 제4회	마안희장로 주성일장로 구자현목사 선계명목사 주영희목사 박종순장로 최애순목사
2008 제5회	정길호목사 박경숙성도 정재철목사 홍인표장로 주미경목사 손종기목사
2009 제6회	정신화목사 서문근목사 정명희목사 김정열목사 김우일목사 조윤주목사
2010 제7회	백현숙목사 김영주목사 윤만용목사 이항영목사 이지환목사
2011 제8회	이인덕목사 이계숙목사 이석후목사 진은미목사
2012 제9회	김지은목사 오대환목사 변하은목사 이명선목사
2013 제10회	조경섭목사 박선영목사 김지연목사 이상호목사
2014 제11회	김남희목사 서영식목사 장명숙목사
2015 제12회	김석호목사 최동훈성도 조원섭전도사
2019 제14회	정현권목사
2021 제15회	고영석성도 설은주목사 성웅우목사 이은서목사

보내시는 분의 정성까지 담습니다

다량 홍보우편물 발송
라벨, 봉투주소 출력
주소록 관리

모아디엠
www.moadm.com

대표 서안석

광주광역시 북구 고운로 13번길 11 (용봉동)
E-mail : sas1821@hanmail.net

TEL : 062) 251-3024
FAX : 062) 251-3044